Stage3 - More Stories A
The Jumble Sale (벼룩시장)

Teaching Note

C- Language comprehension(언어 이해)
W-word recognition(단어 인지)

Group or guided reading

책 소개하기

-C. 제목을 가린 후 아이들에게 표지의 그림을 보도록 합니다.

칩과 비프 그리고 키퍼는 무엇을 하고 있니? (What are Chip, Biff and Kipper doing?)

이 아이들은 어디에 있니? (Where are they?)

-C. 제목을 읽고 이 책에서 딸기잼에 관한 사실들을 알 수 있을지 이야기해 봅니다. 아이들이 오래된 인형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 같은지 그리고 제목은 무엇이 될지 예상해보게 합니다. 아이들의 예상이 맞는지 제목을 보여줍니다.

-C. 아이들에게 벼룩시장이나 혹은 오래된 물건들을 살 수 있는 비슷한 곳에 가본 경험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공부방법

- 아이들에게 새로운 단어를 공부할 때에 이미 배운 파닉스를 활용하도록 장려합니다.

개별 읽기

-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읽도록 시킵니다. 읽는 동안 칭찬을 아끼지 말고 필요할 경우에는 틀린 부분을 고쳐 줍니다.

-W. 아이들이 "cleaning" (p.1), "counted" (p.13)과 같은 단어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음절로 나누어 주고 하나씩 소리 내어 준 다음, 파닉스를 이용하여 붙여 읽기를 하며 단어에 친숙함을 느끼도록 해줍니다.

-C. 아이들이 책의 그림들과 9페이지의 포스터를 보고 더 많은 정보를 생각해 낼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평가:

- 아이들에게 단어 속에 있는 더 작은 단어를 찾게 합니다. (e.g.; draw/er, some/thing,)
그리고 몇 개의 음절로 이루어져 있는지 세어보도록 합니다.

- 아이들이 새로운 단어를 여러 방법으로 뜻을 찾으려 하는지 살펴봅니다.

이야기 복습하기

- C. 7페이지를 펴고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아이들은 왜 슬퍼하지? (Why are the children sad?)

- C. 14- 15페이지를 펴고 다시 질문합니다.

아이들이 지금은 왜 즐거워 보이니? (Why do the children look happy now?)

- W. 4페이지의 "What's"를 보고 질문합니다.

What 뒤의 "s"는 무엇의 줄임 말일까? (What is the "s" short for?)

- 아이들에게 주인공들의 오래된 장난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설명하게 하세요.

Group and independent reading activities

목적: 아이들이 파닉스의 지식을 이용하여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을 즉각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여 더 많은 글들을 읽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대문자로 시작하여 마침표로 끝나는 간단한 문장들도 공부하여 봅니다.

- 다음의 문장들을 칠판에 적습니다.

Mum looked in a
The children were
Dad threw things
They counted their
It was time to
"What's in the bags?" said

- W. 아이들이 책을 본 후 문장을 내용에 맞게 완성하게 합니다.

- 필요하다면 아이들이 대문자를 사용하여 문장을 시작하고 끝맺음 표로 문장의 끝을 맺게 도와 줍니다.

평가: 아이들은 책 속에서 문장들을 잘 찾아 내나요?

목적: 익숙해진 단어들을 즉각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합니다.

- W. 10 쪽에 있는 문장을 읽습니다.

- "something"을 칠판에 적습니다.

-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단어들을 위의 단어 안에서 찾을 수 있는지 봅니다.
(so, some, me, met, thin, in, thing)

- 아이들이 책에 있는 다른 단어 속에서도 위와 같이 단어를 찾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평가: 아이들이 익숙하지 않은 긴 단어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짧은 단어들을 찾아 낼 수 있었나요?

목적: 익숙하지 않은 어려운 단어들을 대할 때 아이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파닉스를 이용하여 알아내도록 돕습니다.

- W. 아이들에게 어려운 단어를 찾아보라고 합니다.

- 아이들에게 자신이 생각한 어려운 단어를 책에서 보고 따라 쓰게 합니다. 이 때 철자를 틀리게 않도록 주의합니다.

- 아이들이 어려워한 단어 중 하나를 골라 글자 각각의 음소를 읽으며 단어를 알아낼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 그래도 아이들이 계속 어려워한다면 그 단어를 읽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함께 의논하여 봅니다.

평가: 아이들이 다른 방법들을 제시하였나요?

목적: 아이들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사건과 생각, 등장인물들에 대하여 형상화하고 글로 표현하게 합니다.

- C. 아이들과 "jumble sale"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의논해보고 가 본적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아마도 아이들은 자동차 트렁크에 헌 물건을 싣고 파는 곳이나 잡화상에 가 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 아이들이 동그랗게 둘러 앉게 합니다. 돌아가면서 "I would give ... to a jumble sale because ..."의 문장을 완성하게 합니다.

- 또는 "I would never give ... because ..."의 문장으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의견을 제대로 제시 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평가: 아이들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의견을 잘 말하는지 살펴봅니다.

Speaking and listening and drama activities

목적: 즉석 공연이나 롤 플레이를 통하여 아이들에게 익숙한 테마와 주인공들을 표현해 보게 합니다.

- 아이들에게 헌 옷과 장난감은 주로 어떻게 하는지 물어봅니다. 질문할 내용:

책 속에서 아이들이 그들의 장난감을 다시 가지고 온 것에 대하여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니?

(Who think it was good that the children bought back their things?)

아이들의 장난감들이 버려 졌을 때 슬프던 사람이 있니?

(Who feels sad when their old toys are thrown out?)

- 돌아가면서 아이들에게 비프와 칩이 되도록 한 다음 그 역할을 맡은 아이는 "hot seat"이라고 적힌 지정석에 앉도록 합니다.

- 다른 아이들은 인터뷰를 하듯이 비프와 칩의 역할을 맡은 아이에게 벼룩시장에서 있었던 일, 오래된 장난감들을 다시 가져 온 일 에 관하여 묻도록 합니다.

- hot seat에 앉은 아이는 질문에 대답합니다.

Writing activities

목적: 대문자와 마침표를 사용하여 간단한 문장을 만들어 봅니다. 대화형식의 문장을 간단하게 작성해 봅니다.

- 아이들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어떤 장난감을 절대로 버리고 싶지 않니? (Which toy would you never want to part with?)

그것이 왜 그렇게 소중하니? (Why is it so special to you?)

- 아이들에게 위에서 대답한 장난감이 왜 소중한지 적게 하고 만약 그것을 잃어 버리거나 벼룩시장에 내어 놓아야 할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은지 간단히 적게 합니다.

- 아이들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남들에게 주고 싶은 장난감들이 있니? (Which toys would you be happy to give away?)

- 그리고 위의 문장들을 칠판에 적습니다.

I would give ... to the jumble sale because ..."

- 아이들이 빈칸을 채울 단어들을 생각하게 하고 문장을 완성하게 도와줍니다. 완성되면 뜻이 맞게 문장이 쓰였는지 확인합니다.

- 각각의 아이들이 벼룩시장에 어떤 물건을 내어 놓고 싶은지 말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평가: 아이들은 대문자로 문장을 시작하고 마침표로 문장을 끝내고 있나요?

Storytelling by Extended Stories

더 길고 자세한 스토리 버전으로, 좀 더 높은 레벨의 수업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언어 노출을 통해 학생들의 언어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이해력과 상상력을 증진시켜 줍니다.

페이지 마다 읽은 내용에 관한 사실과 의견을 묻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over/Introduction

Do you know why Biff and Chip are carrying things in those boxes? They are taking stuff to a jumble sale. A jumble sale is a sale to which people give things they no longer want. These things are then sold, and the money goes to help a good cause like children in Need, or sick animals, or the school book fund.
You can see the sort of things that Biff and Chip are taking to the jumble sale. What do you think of that action man in Chip's box? This story is about a jumble sale at Biff and Chip's school, and what happened when the children had to give some of their old things to be sold.

왜 비프와 칩이 물건들이 든 저 상자를 들고 가는 지 알고 있나요? 그들은 물건들을 벼룩시장에 가지고 가고 있답니다. 벼룩시장이란 쓰던 물건들 중에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들을 파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물건이 팔리고 나면 그 돈은 빈민 아이들이나, 병든 동물들이나, 학교 기금 등 좋은 일에 쓰인답니다. 비프와 칩이 가져가는 물건들이 보이죠? 칩의 상자 안에 있는 영웅 장난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비프와 칩의 학교에서 열린 벼룩시장에 관한 것이고, 아이들이 자신의 오래된 물건을 팔려고 내놓았을 때 생긴 일에 관한 것입니다.

Page 1

Spring-cleaning is a funny word. It's what people do when they have a really good sort out. It's when they give the house or a room an extra special clean up. Mum and Dad were spring-cleaning.
'I've never seen so much junk in one house,' complained Mum. 'The roof space is packed with it. It's a wonder the ceilings don't fall down.' Dad handed down a dusty old box full of broken toys. 'There's that poor old teddy bear that none of the children liked because it's stuffed with hard straw,' said Mum. 'And the clown I had as a child,' said Dad. 'I called it Pogo. Yes, dear old Pogo the clown.'

'봄 맞이 대청소'라는 말은 재미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정리할 것이 많을 때 쓰는 말이지요. 그것은 집이나 방을 특별히 더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 입니다. 엄마와 아빠는 봄 맞이 대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 집에서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본 적이 없어요,' 엄마가 불평을 했습니다.
'지붕까지 꽉 차있는 것 같아요. 천장이 쓰러져 내리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아빠는 망가진 장난감이 가득 담긴 먼지가 쌓인 상자를 내려 놓았습니다.' 저기 불쌍한 곰 인형이 있네, 아이들이 너무 딱딱한 짚으로 채워져 있다고 싫어했었지...' 엄마가 말했습니다. '내가 어릴 적에 가지고 놀던 광대 인형도 있네.'
아빠가 말했습니다. '포고라고 불렀었어. 아, 정다운 광대, 포고!'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What do you do with your old toys? Do you have any old things stored away?

오래된 장난감을 가지고 여러분은 뭘 하죠? 오랫동안 치워놓았던 물건들이 있나요?

Where do you store old things in your house?

여러분은 오래된 물건들을 집 어디에 보관하나요?

What toys don't you like very much in your house?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난감 중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 있나요?

Page 2/3

After they had cleared out the roof space, Mum and Dad began on Kipper's bedroom.
Mum looked in a drawer. It was stuffed full of old clothes that Kipper had grown out of. 'Oh look at this dear little shirt,' said Mum. 'To think he was once as small as this, and now look at him.
I don't want to throw this away.' 'This is no time to feel soppy,' said Dad. 'We can't keep all this stuff and if we don't use it, we don't need it.' 'I suppose you're right,' said Mum and she went on clearing the drawer while Dad threw things out.

엄마 아빠가 지붕을 다 청소하신 후에, 키퍼방도 치우기 시작하셨어요. 엄마는 서랍 안을 살펴봤어요. 키퍼가 자라면서 못 입게 된 낡은 옷들로 꽉 차있었어요. '와 이 작은 옷들을 봐봐,' 엄마가 말했어요.
'키퍼가 정말 작았던 때가 생각나네. 지금 키퍼를 봐봐. 그래도 이 작은 옷들을 버리고 싶지 않아.' '지금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야,' 아빠가 말했어요. '우린 이 모든 물건들을 다 보관할 수 없다고, 쓰지 않는 물건은 필요 없어.' '당신 말이 맞아요,' 엄마가 말했어요. 아빠가 물건들을 버리는 동안 엄마는 서랍을 정리했어요.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Why did Dad say Mum was being 'soppy' about the little shirt that Kipper had grown out for?

아빠는 왜 키퍼가 커서 못 입게 된 작은 옷에 대해 엄마가 감상적이라고 말했죠?

What would happen if the family never threw anything out?

만약 물건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Page 4/5

Biff, Chip and Kipper saw all the boxes that Dad and Mum had brought downstairs. 'You're not throwing all this stuff out, are you? said Biff. 'We certainly are,' said Dad. 'If you don't play with it, you don't want it.' The children looked at the junk. 'Hey!' said Kipper. 'That's my favourite shirt.' Biff and Chip looked in another box. 'I remember this old action man,' said Chip. 'Look at this poor old teddy,' said Biff.
The children went through every box. They played with the old toys. 'Isn't it marvelous,' said Dad. 'You'd think they wanted that old junk!'

비프, 칩과 키퍼는 아빠 엄마가 아래층에 내려 놓은 상자들을 보았어요. '설마 이걸 다 버릴 건 아니겠죠?' 비프가 물었어요. '물론 버릴 거란다,'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놀지 않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아이들은 이 오래된 물건들을 보았어요. '여기 봐!' 키퍼가 말했어요. '저건 내가 제일 아끼는 옷이야.' 비프와 칩은 다른 상자를 보았습니다. '이 영웅 장난감 기억난다,' 칩이 말했어요.
'이 불쌍한 곰 인형 좀 봐,' 비프가 말했어요. 아이들은 모든 상자 안을 다 뒤져 보았답니다. 아이들은 오래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아요?' 아빠가 말했어요. '아이들이 저 고물을 좋아할 줄이야!'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Why did the children want to look through the boxes of junk?

왜 아이들이 상자 안을 보고 싶어했죠?

What did they think when they found the old toys?

아이들은 오래된 장난감을 발견하고 무슨 생각을 했나요?

Page 6/7

'There's jumble sale at your school,' said Mum. 'You brought a letter home about it. We can take all this stuff down to the school straight away.' Mum put the old toys in the car. The children were sad. 'I don't like to think of all our things being sold to anybody,' said Chip.
'

너희 학교에서 벼룩시장이 있더구나,'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져온 가정통신문에 그 얘기가 나와 있더라. 이것들을 모두 학교로 바로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구나.' 엄마는 오래된 장난감을 차에 실었습니다. 아이들은 슬펐습니다. '내 물건들이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팔릴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안 좋아,' 칩이 말했답니다.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Why were the children sad? 왜 아이들은 슬퍼했나요?

Why didn't they want the old toys to go to the jumble sale?

왜 아이들은 그들의 장난감을 벼룩시장에 내다팔고 싶어하지 않았죠?

Page 8/9

So they all went to the jumble sale. Biff and Chip helped to carry the boxes into the hall.
'Well done, you two,' said Mrs May. 'If those boxes are full of toys, take them to that table over there.'
The hall was set out with tables all round the walls and people were pilling stuff on them as quickly as they could. It would soon be time for the jumble sale to begin.

그래서 모두들 벼룩시장에 가게 되었죠. 비프와 칩은 복도로 물건을 나르는 것을 도왔어요.
'아주 잘했어요, 두 학생,' 메이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자들이 장난감으로 꽉 차 있다면, 저쪽 책상으로 가져 가세요.' 복도의 벽을 따라서 책상이 쭉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은 물건들을 책상 위에 빠르게 올려 놓고 있었어요. 곧 벼룩시장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죠.

Page 10/11

The jumble sale began at 10 o'clock, and soon the whole hall was packed with people all pushing and shoving. Lots of people wanted to get in quickly so that they could be first to find all the best things to buy. Wilf turned up at the jumble sale. 'I've never been to a sale like this before,' he said.
The children wanted to buy something but they couldn't decide on anything. 'Perhaps we could buy some books,' said Chip. 'What a lot of junk!' said Wilf. 'I don't think I want to buy anything at all.'

벼룩시장은 10시에 시작되었고, 복도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먼저 가장 좋은 물건들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윌프도 벼룩시장에 있었지요. '나는 이런 벼룩시장은 처음이야.'
윌프가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뭔가를 사고는 싶었지만, 뭘 살지 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책을 사는 것도 괜찮겠다,' 칩이 말했습니다. '와, 정말 고물이 많긴 많다!' 윌프가 말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사고 싶지 않아.'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Why do people like to be first to get to a jumble sale?

사람들은 왜 벼룩시장에 앞다투어 들어가려고 하나요?

Why do you think things at a jumble sale don't cost a lot of money?

왜 벼룩시장의 물건은 값이 쌀까요?

Page 12/13

At last the children made their way over to the table with the toys on it. The children saw their toys. They were still in the box. None of them had been sold. 'No one wants that poor old teddy,' said Chip.
'And there's my old shirt,' said Kipper. The children got together and they counted their money. I wonder if you are thinking what I am thinking.

마침내 아이들은 장난감이 있는 책상까지 갔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가져온 장난감을 보았어요.
아직도 상자 안에 있네요. 아무것도 팔리지 않았나 봐요. '아무도 내 불쌍한 곰 인형을 원하지 않아,' 칩이 말했습니다. '내 오래된 옷도 저기 있네,' 키퍼가 말했어요. 아이들은 모두 모여서 돈을 세어보았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너희도 생각하고 있니?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What are you thinking?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Page 14/15

It was time to go home. 'Well, I should think Mrs may is quite pleased,' said Dad. 'I was really surprised to see all that stuff being sold. There was hardly anything left at the end. Even all those junky old toys that we gave seemed to have been sold.' Mum looked at the children. 'By the way, what's in the bags?' said Mum.

이제는 집에 갈 시간이네요. '아빠 생각에 메이 선생님이 만족스러워 하실 것 같아,'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그 물건들이 모두 다 팔렸다는 것이 놀랍구나. 끝에 가서는 거의 아무것도 안 남았어.
심지어는 우리가 내놓은 고물 같은 옛날 장난감도 다 팔린 것 같다는구나.' 엄마는 아이들을 보았답니다.
'근데, 그 봉지 안에는 뭐가 들어있니?' 엄마가 물었어요.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Do you think Mum and Dad are going to be surprised? 엄마 아빠가 놀랄 거라고 생각하나요?

Page 16

When the children got home, they rushed indoors and unpacked the bags. You can see what they bought at the jumble sale. 'I didn't like the idea of someone else wearing my favourite old shirt,' said Kipper.
'And this poor old teddy,' said Biff. 'Think how he'd have felt if nobody had wanted to buy him.' 'I thought I would try to mend this action man,' said Chip. Mum and Dad looked at each other. Can you guess what they said? 'Oh no!'

아이들은 집에 도착하자, 뛰어들어가서 봉지를 풀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벼룩시장에서 무엇을 샀는지 알 수 있겠네요. '나는 그냥 다른 사람이 내가 제일 아끼는 옷을 입는다는 것이 싫었어,' 키퍼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쌍한 곰 인형,' 비프가 말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사지 않았다면 얼마나 슬펐을지 생각해봐.' '나는 영웅 장난감을 고쳐볼까 생각 중이야,' 칩이 말했어요. 엄마와 아빠는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뭐라고 말했는지 맞춰 보세요.' '이럴 수가!'